여수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거듭난다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3년간 국비 85억·시도비 45억 등 130억원 투입

중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과 환경문제 대처를 위해 내년까지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선정된 스마트 그린산단의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21년부터 3년간 국비 85억원, 도비 13억 5000만원, 지방비 31억 5000만원 등 총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여수국가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7대 지하 시설물이 포함된 통합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스 배관 등 지하 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 IoT를 기반으로 한 대기 유해 물질 측정기, VOC 분석시스템, 지능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측정기 39개소가 설치된다. 산업단지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 구축과 함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화학 사고 대응 시스템, 노후 산단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사업이 연계될 경우 여수국가산단은 안전과 환경으로부터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여수산단 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 차밭으로 단체 피크닉 오세요

티푸드 체험·녹차 족욕 등 다채
관외 거주 10인 이상 선착순 모집
전통차 농업시스템 홍보

보성군이 오는 10월까지 차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프라이빗한 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차 체험 프로그램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등재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홍보와 보성차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1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이며, 관외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오는 10월까지 선착순 접수로 운영되며, 체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1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1인당 체험비 2만원이 지원되고,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차량 임차비 50%(광주 35만 원~서울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녹차·떡차·블랜딩) 만들기와 차 문화 체험, 차밭 피크닉, 녹차 족욕 체험, 티푸드(녹차 초콜릿, 녹차비빔밥) 만들기, 야생차밭 걷기 체험 등 차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지정 체험장은 한국차박물관, 가막제다원, 골망태다원, 보림제다, 보향다원, 초록잎이 펼치는 세상 등 22개 다원이며 보성군 22개 차 체험장 또는 협조 단체인 광주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초록 융단을 뚫고 나온 여린 찻잎을 직접 따서 수제차를 만들다 보면 풍경에 취하고 향에 취해 절로 행복해진다"며 "자연 속에서 차 문화를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는 보성 차 체험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탄소 중립 대응 숲 가꾸기 본격 추진

산림 135ha 나무심기 등

곡성군이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대응에 나섰다.

먼저 나무심기는 산림 135ha 면적에 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편백, 백합, 가죽나무 등 경제성이 있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수종을 선정해 38만 본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목재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극대화해 숲의 공익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나무 심기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숲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는 기존에 식재된 1400ha 규모의 산림에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큰 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재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림의 대부분이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수시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산림 소유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시 귀농 생애주기별 지원 '인구정책 지원 가이드북' 제작

순천시가 전입혜택, 귀농·귀촌 등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구정책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전입지원 ▲귀농귀촌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정보들이 담겨있다.

올해는 '은퇴자가 꿈꾸는 전원도시'를 슬로건으로 은퇴자 정원조성, 귀농인 주택구입, 농지 임대료 지원 등 귀농·귀촌인 정착 시책을 추가했다.

가이드북은 순천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지리산 붉은 유혹

아고산대인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정상부에 털진달래가 개화, 노고단 일원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노고단 털진달래 개화…5월 4일 절정

지리산 노고단에 털진달래가 개화를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지리산 아고산대인 노고단 정상부에 털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해 노고단 자락을 붉게 수놓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중순께 시작된 털진달래의 개화는 이번 주말인 30일에서 5월 4일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털진달래는 진달래와 분류학적으로도 아종(Subspecies)이며 모양도 유사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달래와 달리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등 고지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종이다. 잎에 털이 나 있어 털진달래로 불린다.

염기원 행정과장은 "주말 노고단 일원의 털진달래를 감상하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탐방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송귀근 고흥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송귀근〈사진〉 고흥군수가 지난 25일 고흥군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재선을 위한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송 예비후보는 "민선7기에서 시작된 주요사업들을 민선8기에서 완성하겠다"며 "중단 없는 고흥발전을 위해 4년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또 "고흥군 예산1조원 시대를 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8기에는 4년간 고흥군예산 5조원 시대를 달성해 더 살기좋은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소통을 기초로 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군수 공약 진척도 90%를 달성했다"며 "고흥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씩 지급

5월 2일부터 신청

광양시가 올해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광양시는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마련 등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며, 학생 1인당 10만원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5월2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미신청자는 11월30일까지 시청 교육보육과에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광양시 교육보육과장은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 지급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광양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